

祖國의 光復을 一年 앞두고 四十一歲를 一期로 棄世하셨으니 先生이 壽하지 못하신 점도 恨스럽지만 우리 나라에서 美學 및 美術史를 전공하신 단 한 분으로 韓國 美術史의 完성을 生前에 기약하시다가 執筆 도중에 가셨으니 그 痛憤함이 어찌 그 가 르 침을 받은 사람들 뿐이랴.

筆者가 先生에 대하여 一生의 恨으로 생각하는 일은 先生의 臨終을 못 보셨던 일이다. 先生의 病患은 肝硬變病으로 한 때 好轉되었다가 다시 惡化하여 意識이 昏迷하신 속에 病席에 누우신채 筆者의 손을 잡으시고 『秦君!』하고 부르시던 것이 최후였다. 그 뒤 筆者는 당시 教鞭을 잡고 있던 開城 好壽敦女中の 公州師範學校 受驗生을 인솔하고 출장하였다.

돌아오니 그 동안에 先生은 세상을 떠나셨고 葬禮도 치르고 난 뒤였다. 博物館으로 뛰어 올라 가니 先生의 冊床이니 冊들이 그대로 있으나 先生은 안계시고 침울한 空氣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 후 忌日이면 水鐵洞(開城)墓所에 後學이 모여 三色果實에 एं두랑 오이랑 祭需를 마련하고 生前에 좋아하시던 술을 올리며 省墓하고 粥을 뽑았건만 六·二五 이후 그것마저 중단되었다.

先生께서는 又玄 외에 『汲月堂』이라는 雅號를 쓰셨으니 그 뜻은 山間에 한 원숭이가 있어 물을 마시려 섬물을 찾아 내려왔더니 마침 輝煌한 달빛이 물에 비쳐거늘 원숭이가 달을 건지려고 밤새도록 물을 퍼내면서 달을 잡으려하나 이내 잡히지 않더라, 學問도 또한 이와 같아서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것이라 하셨다. 이러한 雅號를 쓰신 것은 「丈夫의 一生」을 받치려하신 先生이 學問에 대한 畏敬과 그 深奧함을 몸소 느끼신 결과이고 그런데서 結實된 百數十篇의 珠玉같은 論說이 後學을 引導하는 바 크니, 만일 先生이 살아계셨다면 同學들이 啓蒙되는 바 얼마나 컸으랴 限量키 어렵다.

先生의 一生은 學問에 대한 정열과 여의치 않았던 환경에서 오는 고난의 극복뿐이었다. 大學에서 擔當教授의 말대로 여유가 있어 이 學問을 擇하신 것도 아니요, 그 후 도 연구에 여유가 충분하였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느라 무한히 애를 쓰셨다.

『사람의 마음은 一大難關에 처해야 비로소 그의 마음에 進歩를 발견

한다 發見되는 그의 所得은 비록 적을 지라도……그러다가 마침내 爆發的 啓示로 말미암아 그의 勝利는 實現된다고 믿는 까닭으로……』 (『餞別의 瓶』에서)

라 하신 것이나.
凡百花 봄에 피고
千萬果 秋實일세.
獨孤松 有節竹만
春秋없다 이르으니
어즈버 배울 것은
松與竹일까 하느라(同書에서)

하신 것이 모두 這間의 心情을 전해주는 말씀이다.
先生이 가신지 어언 二十年——先生이 남기신 教訓과 滔滔한 文章은 後學의 心琴을 울리건만 汲月하는 猿公의 役事는 千里 萬里 까마득하니 해를 거듭할수록 先生을 그리는 마음 더욱 懇切해진다.

高裕燮先生을 追慕함

—— 그의 二十周忌를 맞이하면서 ——

朴 炳 浩

故 又玄 高裕燮兄이 世上을 떠난지도 於焉 二十年이 흘렀다. 又玄兄의 愛弟子의 한 사람인 秦弘燮教授가 찾아와 그의 二十周忌記念發刊에 즈음하여 故人과의 親分關係로 追憶談이나 「에 피소 드」 같은 것을 적어달라는 付託을 받았다. 원래 短文, 愚鈍한 나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請이다.

又玄兄이 한참 不惑의 나이로 學者的 意氣에 불타던 그가 短命한 原

因도 「술」이 아니었던가 믿어진다。 그도 그럴것이 그當時 日帝의 斷末魔的 造作으로 朝鮮語學會事件이니 무어니하여 愛國志士, 學者, 青年들을 數없이 監獄으로 잡아넣을때 又玄兄만 平安히 書齋에서 研究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鬱憤과 孤獨을 잊어버리려고 取한 詩이 亦是 술이 아니었던가 그를 빼앗아간 病 「肝硬變症」은 이제나 그때나 한번 걸리면 完治시키기 어려운 痼疾의 病이다。 그病은 勿論 「술」과 至大한 關係가 있다。 그때의 主治醫었던 나는 한 五年만이라도 더 살아주었으면 하던 所望을 이루지 못하고 病난지 三年만에 그는 永永 不歸의 客이 되고야 말았다。 배에 물이 잔뜩 고여 呼吸困難과 步行까지 못하던 그가 病的 差度가 있어 腹水가 完全히 빠지고 가벼운 몸이 되었을때 절대 安靜하라는 나의 忠告를 물리치고 그가 寓居하던 博物館에서 나의 집까지 걸어나와 나를 놀라게 하였다。 그의 心情은 病이 나아져서 오랫동안 누어만 있던 病席에서 잠시나마 解放되어 바깥 空氣도 힘껏 마실겸 나에게 情誠어린 마음을 풀러 왔을 것이요, 나는 그가 그만큼 順조롭게 病이 나아가는 것을 고맙게 여겨서로 께안고 는 물물리던 生覺이 어제와 같다。

그때 又玄兄은

『여보 朴兄! 내마음이 大端히 기쁘니 술한잔 안추겠오?』 이 얼마나 哀切한 心情인가? 내 그에게 半盞술을 주고 그 代身 그의 몫(分)까지 합쳐서 한瓶의 술을 내가 혼자 마시었다。

어느때가 그가 病室에서 步行이나 겨우 許容받았을때 只今 우리나라의 太極旗를 그리면서 네 모퉁이에 있는 八卦는 易學에서 나온것인데 理致는 좋은나 너무 어려워 位置를 記憶하기가 힘들니 美學的으로 보아도 靑과 赤이 서로 映크리져 있는 圓 하나만으로도 좋다고 말하였다。

病나기 전 健康하였던 그가 坐席에서 自己親舊한사람이 江가에 近시질을 가서 커다란 잉어 한마리를 잡아가지고 좋아하는 同行들에게 近處村家에 가서 白紙와 먹(墨)과 베투(硯)를 빌려오라고 하더니 白紙위에 잡아온 「잉어」의 拓本을 만들고 잉어는 江물로 다시 살려보내고 탁본한 白紙를 배운탕속에 집어넣어 끓여먹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무척 哀惜하게 여겼지만 나중에 그 親舊의 멋드러진 風流에 感激했다는 말을 들

었다。 이제 又玄兄이 간지 滿二十年 그를 爲해 同志들이 세운 碑石은 아직도 松都郊外 水鏡洞에 있으면만 只今은 오고가지 못하는 以北아닌 以前의 그를 追慕하더니 이제 그는 그누가 그를 찾아 술을 부어 주려나? (一九六四年 初夏)

高裕燮氏の思い出

中 吉 功

今年六月二十六日は、韓國美術史學界の草分けである高裕燮氏の歿後二十回忌の記念日にあたる。かねて黃壽永氏から追憶記の依頼があったので、亡き高裕燮氏の生前の思い出の一端をつづって故學契の靈を弔いたいと思う。

高氏と私との知り合いの始まりは、一九二八年の四月のことであった。私がソール大学の前身である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美術史研究室にはじめて職を奉じたとき、高氏は美術專攻の二年生になったばかりであった。主任教授の上野直昭先生 當時研究室には野先生一人であったに紹介されたとき、実に好感のもてる人と直観したが、案にたがわず交際するうちに段々と高氏の奥ゆかしい人柄に魅せられるようになった。お互いに胸襟をひらいて話す間柄となり、朝鮮人とか、日本人とか、そんな分けへだてはちつともおこらず、いつしか兄弟のような親しみが湧いてきた。當時特に印象にのこるのは、ドイツ語の原書の美学演習の時間に先生一人、学生一人 勿論高氏で、なんとという勿体ないことかということであった。上野先生と高氏がむかいあって高氏が音読しては邦訳していた学生服の姿が昨日のように目前に浮んでくるものなつかしい。高氏はいつも上野先生の堪能なドイツ語のすばらしいさを私に話していたのを覚えている。やかて三年に進